



## 기술원의 더욱 안전한 내일을 꿈꾸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활동 강화 컨설팅

글 이승열 사진 김재이

로드맵이란 바람직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략 계획을 의미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관리단은 '어제보다 오늘 더 안전한 업무환경'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물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그 힘찬 발걸음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컨설팅과 함께 더 많은 추진력을 받는다.



## 국민의 안전이 시작되는 이곳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 개원했다. 위험물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산업을 육성 및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중 가장 주요한 사업은 소방용품, 소방장비 및 방염물품에 대한 검사와 인증이다. 이 일은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에 직원들은 오류나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실제 재난 현장과 최대한 비슷한 현장을 구현해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점검 중이던 부품이 손상되거나, 화재 및 유독가스 흡입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곳 안전관리단의 역할이다.

역할 수행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활동은 작업 전·후 노동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일이다. 오전 9시 30분과 오후 5시 50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안전수칙 안내 방송을 송출한다. 누군가는 사소한 일이라 말할 수 있지만, 아직 큰 사고 하나 없는 현장이 작지만 꾸준함의 효과가 아니겠냐고 안전관리단 강희연 단장은 설명한다.

“매일 작업 시작 전 그리고 작업 종료 전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안전수칙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

야기겠지’라는 생각이 한쪽으로 들면서도, 이를 자주 상기시키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사업장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안전 로드맵

원래 기술원의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경영관리부에서 맡은 역할 중 하나였지만,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흐름에 따라 2019년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신설됐다. 전담부서 설치 이후 안전에 관한 분위기는 달라졌다.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는 데 추진력이 더해졌고 더욱 구체적인 안전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다만, 인력의 한계로 인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는 곧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계기가 됐다.

안전관리단 구성원들은 컨설팅 이후 크게 2가지가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로는 단점으로 여겼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담부서임

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활동 외에 각종 훈련, 시설, 보안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안전관리단의 주업무인 안전보건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업무 구분을 명확화했다.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시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체계를 완성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였다. 이후 안전관리단은 사업장 안전진단 실행과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등 안전보건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착수했다. 2개월여가 지난 2024년 1월 기준 이 과정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안전관리단의 안전보건 담당자 박은상 대리는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컨설팅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컨설팅이 우리가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방향까지 알려주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임직원 설문조사까지 거치고,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면 기술원의 미래를 더욱 탄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전보건, 모두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으로 얻은 또 하나의 수확이라고 한다면 안전관리단 모두의 전문지식 습득이다. 안전관리단 특성상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구성원들로 구성돼 있기에, 컨설팅은 전문적인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2023년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강희연 단장 또한 같은 반응이었다.

“원래도 안전은 멀리 있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직접



업무를 맡아 수행하니 그 중요성이 더욱 체감됩니다. 특히, 컨설팅 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더욱 안전한 기술원의 미래를 꿈꾸게 된 안전관리단. 나아가 기술원 구성원 모두가 더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이는 곧 수립 중인 안전보건 중장기 로드맵의 최종 도착지이기도 하다.

“노동자 대부분이 안전하게 일하시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급 및 수급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경우도 있고요.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키는 방법은 스스로의 실천입니다. 저희도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모두의 안전한 활동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 안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안전관리단 **강희연** 단장

**Q. 안전관리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신설된 안전보건 전담부서인 안전관리단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보건 및 시설보안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기반을 탄탄히 다지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비로소 안전보건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부문 다짐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안전보건은 경영진의 의지,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지도와 조연, 노동자의 실행, 이 세 가지가 이행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규정을 숙지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단 구성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